

義士

元心昌

元心昌義士 吊歌

이 은 상 지음

1. 우리님 한평생 6십6년을

제한몸 부귀영화 다 버리시고
꿈속에도 조국과 겨레를 위해
정도를 지켜사신 원심창의사。

2. 언제나 어디서나 불사조같이

원수의 옥속에서 호령하셨소
물불과 총칼앞에 두려움없이
의기로 살고가신 원심창의사。

(후렴) 뼈는 비록 이역땅에 묻히신대도

혼일랑 조국으로 돌아오소서
그이름 그정신 길이길이
우리들 가슴속에 깃드옵소서

3. 통일을 못이루고 가시는님이

눈인들 편안히 감으시릿가
님의뜻 우리들아 받드오리다
비노니 고요히 잠드옵소서。

元心昌義士와 나

李 康 勲 (同志)

그가 서거(逝去) 할 때까지 40년이란 세월을 사귀어온 내가 上海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피의 항쟁을 공모한 사실 또는 우리들 자신이 몸소 단행한 거사(擧事) 13년간이나 옥고(獄苦)를 같이 치룬일 해방후 재일교포사회에서 민족간부로 일하던 일 등을 모두 적으려면 너무 장황하므로 내가 본 元義士의 人品과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한 그의 빛나는 생애를 써 나가면서 생사를 나와 같이 맹서하고 항쟁한 역사적 사실을 요약해서 내 나름대로 느끼고 체험한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그의 人品

(1) 먼저 유교(儒敎)식으로 표현하면 元義士는 道德君子였다. 그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고 희생하려는 봉사정신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 볼수 없었으리만치 독특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 (2) 元義士의 성격은 지극히 양순하고 인자한데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해(害)를 끼치려는 무리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은 추상열일(秋霜烈日)과도 같은 것이어서 공적(公敵)에 대한 태도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백척간두(百尺干頭)에서도 그대로 나아가는 민족도의심과 지용(智勇)을 겸비한 전형적 혁명투사였다.

(3) 元義士의 생리는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르는 남만 위해서 사는 문자 그대로 아주 탈속(脫俗)한 인간처럼 밖에는 보여지지 않았다.

일은 자기가 하고 공(功)은 남에게 미루는 그 아량(雅量)。

사지(死地)에서는 언제나 앞장서려는 동지를 아끼는 그 덕성(德性)。

나는 수많은 혁명동지들과 어울려 보기도하고 사선(死線)을 뛰어 넘기도 하였으나 그중에서도

元義士는 眞善眞美의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는것을 절실히 느꼈었다.

2. 行狀의 實例

1931년 늦가을 침체된 독립전선(獨立戰線)의 사기(士氣)를 높이고 무명(無名)의 동지들과 과 더불어 滿州大陸을 유린하고 살인마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왜놈 「사무라이」의 그칠줄 모르는 야만성을 뽑내는 그들 침략자에게 심리적으로라도 타격을 가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극을 줄만한 파괴활동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대륙(大陸) 제1선에 상주하는 적의 기관인 영사관과 침략군의 보급선(補給船)을 폭파(爆破)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元義士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직접적인 행동에서도 元義士가 앞장을 섰다.

그리하여 千里芳(李容俊)과 元義士는 天津 日本領事館에 폭탄을 던져 日帝무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며 거듭 天津 外港에 정박한 군수품(軍需品)을 실은 대형 기선에 폭탄을 던져 세상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으며 그밖에도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만치 많은 회수의 직접 행동을 몸소 단행

하였다.

다음은 비록 도중하차(途中下車)는 면하지 못하였을 망정 그 유명한 「六三亭」사건인데 이 거사의 동기도 元義士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는 원래 日本말도 유창하고 민을만한 日本志士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항상 귀중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때는 1933년 3월 5일이었다. 장소는 上海 프랑스租界 復履理路 步高里 亭元坊이라는 아파트 2층인데 白貞基義士를 비롯한 鄭華岩、楊汝丹(吳冕租)、李達、李守鉉、金聖壽(朱烈 또는 芝江)、李容俊(千里芳)、嚴舜奉、元心昌義士와 나 李康勲이 모여 시국에 대한 말이 오고 가던중이었다.

元義士가 말하기를 방금 입수한 정보라면서 지금 日本軍閥의 魁首格으로 日本内閣의 실권을 잡고 있는 육군대신 荒木貞夫는 駐華公使 有吉明에게 日貨 4,000만원(美貨 2,000만달라)이라는 큰 돈을 주어 中国国民党안에 기생(寄生)하고 있는 漢奸(日帝에 매수되어 주구노릇을 하는 失意政客과 敗殘軍閥)들과 有吉公使를 비롯한 白帝의 고급관료(官僚)、장령(將領)들과의 사이에 비밀회의를 갖고 중대한 결론을 맺으려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반만항일(反滿抗日)을 계속하고 있는 熱河省 및 기타 滿州 각지의 항일군(抗日軍)과 한국독립군 및 이를 뒤에서 후원하는 한국인지사(志士)들을 日本軍警이 체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서 反滿抗日투쟁을 저지하고 한국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하여 日本에 인도(引渡)한다는 것이었으며 만

일 이와같이 된다면 우리들의 독립운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다는 것이었다.

元義士의 이와같은 말이 끝나자 옆에서 듣고있던 李康勲은 이번에는 내가 죽을 차례이니 내가 有吉公使이하 몇놈을 대형폭탄으로 폭살하겠다. 다른 사람은 꼼짝마라라고 말하였고 白貞基義士는 벌떡 일어서면서 내 이미 폐병3기에 걸린 몸이다. 기왕 죽을 목숨이니 이놈들을 내가 폭살하고 죽겠다. 그들 대상물(對象物)은 피값은 되겠으니 참 좋은 기회다라고 외쳤다.

모두가 취죽은듯이 침묵에 잠겨있을때 鄭華岩의 제의(提議)로 오늘은 이대로 헤어졌다가 내일 다시 만나자는 말에 뜻을 같이하고 다음날인 6일 같은장소에서 같은 동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제비뽑기로 白貞基義士와 李康勲이 집행자로 뽑혔다.

이 거사(舉事)에 따른 면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적의 동정을 살피는 일과 현장조사등은 모두 元義士가 책임지고 은밀히 활동하였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1933년 3월 17일 오후 8시경 李圭昌(李會榮선생의 아드님으로 21세) 어린동지가 세 내어온 西城자동차회사의 택시를 타고 白義士는 小型폭탄을 李康勲은 대형폭탄을 몸에 품고 元義士와 柳子明이 동승(同乘)하여 가다가 柳子明은 共同租界의 경계를 넘기전에 내리고 그의 작별인사를 받으며 우리들 3인은 共同租界에 있는 日本人거주지까지 도착하였고 길안내를 말은 元義士와 白義士는 임시 대기소인중국음식점 松江春으로 갔다.

적의 무리가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소인 六三亭현관을 나와 자동차에 오를 무렵 元義士의 암

시에 따라 李康勲은 대형폭탄을 던져 有吉明을 폭살하고 白貞基義士는 추격하는 日本경찰을 소형폭탄과 권총으로 공격할 예정이었으나 폭탄을 던지려는 찰라 세 사람은 모두 日警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후 上海 日本총영사관에서 拷問을 받으면서 취조받을 때 우리들은 이미 각오한 바 있으니 拷問보다는 죽는 것이 소원이다. 빨리 죽여달라고 항거하였더니 그들은 3인의 진술 그대로를 취조서류에 수록하였다.

증거물로 폭탄 권총등이 있었으므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으나 동지들의 주소 그리고 작전계획등은 혁명전열(革命戰列)에 누(累)가 될 것이 뻔하므로 일체 함구하였다.

특히 李康勲은 滿州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上海에 온 것이기 때문에 滿州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의 주소를 대라고 가진 고문을 다 당하였으나 끝내 입을 다물었고 비교적 단시일내에 경찰취조·예심종결을 마치고 동년 7월 5일 藤井라는 日本警部 압송(押送)으로 黃浦江부두를 떠나 太平洋을 바라보면서 日本 長崎항에 도착 그곳 浦上 감옥에 수용되었다.

그후 長崎지방재판소에서 심리, 법정투쟁등 많은 곡절(曲折)을 거쳐 판결을 언도 받았다.

11월 24일 세 사람은 말은 못하나마 눈인사로 서로를 격려하였고 최후진술에서는 白·李 두 사람은 日本말이 서툴러서 겨우 반항하는 감정만을 표현하였을 뿐인데 元義士는 日本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이론도 정연하게 역사적으로 법한 日帝의 죄악상과 야만적인 행패를 일일이 실례를 들어 가며 당당하게 꾸짖으므로 재판정을 日帝의 죄악을 성토하는 모임으로 느끼게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판사 5명은 저희들끼리 서로 무어라고 하다가 당황한 태도로 어찌할바를 모르고 요시·요시를 연발하다가 마침내 퇴정하고 말았는데 그때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때 元義士의 응변은 실로 통쾌하였었다.

그후 鍊早라는 감옥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감옥생활을 시작하였다.

옥고(獄苦)를 치루는 동안 서로 얼굴도 못보고 있다가 1936년 6월 白貞基義士는 옥중에서 순국(殉國)하였고 元義士와 나는 정치범만 수용하는 鹿兒島감옥으로 또는 장기수(長期囚)만 수용하는 熊本감옥으로 몇해씩 돌아다니는 동안 그들은 우리들의 사상을 전환시키기 위해 가진 교활한 수법을 다 써왔으나 우리 두 사람은 단호한 태도로 유혹을 뿌리치고 고생하다가 8·15해방을 옥중에서 맞이하였으며 수많은 동료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으며 日帝의 감옥문을 나왔다.

그후 元義士는 나보다 1개월쯤 먼저 귀국하였고 친지들 혁명동지들과 만나 얼마동안 있다가 선으로 갈라진 조국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玄海灘을 건너 東京으로 가서 定着 100만 재일동포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면서 겨류민단의 전신인 朝鮮建設同盟의 사무총장으로 또는 겨류민단 단장으로 또는 통일신문사 고문으로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의 상징적 존재로서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뽐내고 있다가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오매불망 염원하던 조국통일을 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셨다.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처음인 義士의 칭호로 받들었고 사회장으로 봉장(奉葬)하였다.

(李康勲氏는 現在 援護処에서 獨立運動史를 編纂하고 있는 분으로 過去 中國에서의 獨立運動을 함에 있어서 同苦同樂하였으며 獄苦도 같이 치른 분임)

統一運動의 進路

(이 論說은 元心昌 義士가 一九五九年 六月 十一日 日本東京에서 發行되고 있는 統一朝鮮 新聞에 掲載한 것으로서 平和統一原則에 關한 그의 理論이다.)

統一運動의 沈滯에 對한 反省

최근의 내외정세는 대국적으로 한국통일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중론이 일치하는 바로서 새삼스럽게 필자가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의 통일운동은 한국통일을 둘러싼 내외정세에 비추어 볼때 몹시 침체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현실로서는 아무리 내외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더라도 한국통일의 실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일 국제적인 협상에 의해서 통일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얻어진 통일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몹소 겪어온 바와 같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8·15해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운동을 앙양시켜서 우리의 통일운동이 통일운동을 둘러싼 내외정세를 유도하는 단계에 까지 올려놓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통일운동은 내외정세를 유도하기는 커녕 이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통일운동은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통일운동의 발전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비판과 반성은 국내에 있어서의 통일운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남북양지역이 다 같이 제한된 통일운동 밖에 못하고 있느니만치 양지역의 통일운동을 연계·조정하는 뜻에서의 통일운동은 전혀 해외에서의 통일운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외에 있어서의 통일운동 즉, 우리들의 통일운동을 중심삼아 말하고자 한다

「統協」과 主体性

해외에 있어서의 통일운동은 일본의 통협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한 분열된 국가의 통합이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된 것은 1955년초의 통협운동으로서 統協의 발족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南日外相의 성명에 대한 반응을 보이려던 몇몇 사람의 집단이 방향을 바꾸어 통협을 발족시켰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관찰인 것이며 일시적이었기는 하지만 통협운동의 발족은 대중의 욕구와 합치되어 광범한 반응을 일으킬만한 정세와 조건하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협운동이 재일본한국인사상 드물게 보는 호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民団、總聯系의 조직적인 반대와 냉시, 동지들의 비열한 이탈 그리고 한국문제에 대한 관계제국의 냉각, 이에 따른 지지대중의 離散…… 이와 같은 일들은 한결같이 통협운동의 불길의 식어간 원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의 전부는 아닌 것이며 또 치명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통협운동이라고 불리워진 우리들의 통일운동이 주체성이 부여되고 확립되어 그 주체성을 지켜나가는 핵심부대가 있었다라면 객관적 정세의 변동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민단의 반대, 총련의 냉시로 힘없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무책임한 동지들의 이탈도 시세에 민감한 지지대중의 이탈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통일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도 우리들의 손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主体性的 内容

그러면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주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우리조국의 통일은 우리들의 손으로 성취한다는 자각이며 우리의 통일운동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각과 각오는 적어도 조국통일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이란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민족해방운동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순한다는 신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와 같은 정신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비로소 통일운동의 기초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통일운동의 주체성은 이 기본정신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본정신위에 사상적원칙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사상적원칙은 첫째는 민족자결의 원칙이고

둘째로 평화의 원칙이며

셋째로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넷째로 국가동권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협조의 원칙이다.

어느 사람은 이와같이 누구나가 잘 알 수 있는 말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이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거의 모두가 論語 읽는 사람이 논어 모른다는 격언과 같이 이들 여러 원칙의 정신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탈선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족자결을 입에 올리는 자가 남북협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자가 북진통일을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가 배공단선(북한만의 선거)를 고집한다.

그러고서도 자명의 원칙이라며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외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통일운동의 기본정신과 그 사상적 원칙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우리들의 통일운동이 단순한 기분적 또는 분위기적 운동이 아니라는 것임은 물론 무원칙한 정략, 정책의 타협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原則에 立脚한 政策

그렇다고 해서 이와같은 기본정신과 사상적 기본원칙만으로 통일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운동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즉, 통일운동의 목표가 없어서는 안된다. 기본정신이나 원칙만을 반복하며 행동목표를 저버리는 일은 마치 우리들의 선조가 실생활에서 벗어나 유도에만 빠져들어 국과민망의 민족적 비극을 자초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통일운동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듦에 불과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들이 조국의 국토로부터 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나 남북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그 기초를 둔 것이고 남북을 통한 총선거에 의해서 통일중앙정부의 수립을 부르짖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관련국제회의에서의 합의를 바라는 것은 국제협조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우리들의 통일정책의 이와같은 원칙성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일방적 의견만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와같은 원칙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

해서 우리들의 통일정책을 마치 모종의 정략이 내포되어 있는 구호로 오인하고 있다.

이와같은 태도가 우리들의 통일운동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들의 통일운동은 상술한 바와 같은 기본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우리들의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추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다.

원래 통일자체가 상반된 양세력 이질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양지역을 조정하여 통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무던히 폭 넓은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원칙없는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조정의 정책이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結 語

지금이야말로 평화통일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상술한 바와같은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가지고 조국의 평화통일의 실현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해외에 있는 평화통일세력의 총집결을 외친다. 지난날의 통일운동에 대한 귀중하고도 준엄한 경험을 살려서 편협한 배타적 근성을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대동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화통일진영을 강화할 수는 없다.

우리들은 조국의 남북과 해외에 재류하는 모든 동포를 설득 제몽하여 평화통일의 깃발아래 결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외침을 한데 모은 다음 통일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긴급성과 통일일을 갈망하고 있는 한국민족의 진의를 전세계에 전하여 그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우리는 우리들의 통일사업과 통일운동을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를 분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은 물론이지만 이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일부 외국세력분자의 위선성을 적발, 폭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통일의 가면을 쓰고 우리들의 손수한 운동에 대해서 해독을 끼치고 있는 악질분렬주의세력에 대해서도 그 정체를 폭로하고 용서없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평화통일을 표방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국토의 분단과 민족분열을 합리화시키려는「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운동의 대열을 정비하고 한민족의 의지를 통일하여 새로운 전진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들은 서로 손을 잡고 굳은 결의로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평화통일운동의 빛나는 전진을 위하여 민족의 총열량을 집결, 발휘합시다.

病 床 日 記

||잘도 살아온 無理한 生活50年||

元心昌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 밤샘을 할 때 유품중에서 「生死片雲共徘徊」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노트 한편과 곤색표지의 수첩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6월 9일 입원한 다음 쓰여진 병상일기였다. 그중 일부를 이에 옮겨본다.

병상일기라고는 하나 그 내용은 전부 그 자체가 遺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부분이 조국 민족, 통일, 재일동포사회, 동지들에 관한 글이었다.

특히 그 내용이 오늘보다는 내일,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사실에 대한 구상이라는 점에서 읽는 사람의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생전 선생은 손이 자유스럽지 못하여 글을 쓸 때 적지않게 불편하였다. 이런점을 감안할 때 투병 생활에만 전념했어야 할 극악의 생리상태에서 이런 문장을 썼다는 것은 놀라울만한 일이었고 선생의 굳은 의지력을 새삼스레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선생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뛰어나게 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어린이와 같이 어디가나 청순하고 사심이 없는 선생의 인간미가 넘쳐 흐르는 이 글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이 될 것이다.

6월 9일

矢口渡역전의 岩崎내과병원에서 진찰, 중병으로 입원.

병명 Ⅱ 간, 심장, 폐에 간기능부족이 원인으로 된 복수충만, 등에도 물이 들어가 곤란을 느낌, 오줌을 누지 못함. 체중 72kg (腹水 10,000cc Ⅱ 6升). 고문인 岩崎선생의 진찰은 도저히 사람이라 부를 수 없으리만치 놀라웠다.

선생은 「元선생도 한국을 위해서 혁명을 하려 하지만 의학은 인간혁명입니다. 회복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 활동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와같은 선생의 이해성있는 말을 듣고 생과사를 선생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6월 16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절식.

식욕없고 주사약으로 연명, 오늘부터 오줌누기가 좀 나아졌다. 그 빛도 점점 좋아졌다. 13일에는 기침과 간장의 아픔이 극심하고 腹水가 치받쳐 배속은 휘젓는 것같이 아렸다. 소변은 물론 없고 배는 부프러 오르지만 한다.

李榮根선생은 나의 병상은 대단치 않다고 의사선생의 말을 전화로 전하여왔다.

전에 집에 와서 입원하도록 권고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더욱 나빴다.

時 感

梅雨蕭蕭病窓外
怒風天水腹水滿
母國情況近如何
生死壁頭淚不禁

봄비는 창밖에서 차분히 내리는데
배속에서는 모진 바람불어 천수가 가득찼네
고국의 근황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눈물만 솟아오르네

志友來訪

李元世형 曹寧柱형 申貞植군 神戸에 제신 全海建선생에게는 소식을 전하려 하였으나 노년의 선생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는것 같아 사양하였으나 선생께서는 몹시 섭섭하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많지도 않은 동지들에게 생전 최후의 석별을 나누고 싶었으나 그런 생각을 도저히 입밖에 내놓을 수 있는 기분이 되지 못하였다.

이곳에 입원한지 전후 10일간 그중 특히 3·4일간은 生에 대한 집념을 떼어버리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나 별고없다고 입으로만 연발.

시끄러운 교포사회의 정황은 눈을 감아도 그 중책이 통감된다.

動以不靜 健康之根法
靜以不動 冥想之本法

가만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건강의 근본 법칙이며,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있는것은 명상의 근본 자세이다.

6월18일

고문선생의 특별진찰에 의하면 폐병은 20대, 그 다음이 간장인데 心臟病은 약 3년이 되었다는
말이었다. 잘도 살아왔다. 무리한 생활 50년 조금도 쉬지않고 (18일 11시)。

西望路程數千里
神仙生活非他有
遠思不見近如何
現在固守清海邊

언덕에 달이 오르고 있다
해변으로 산책을 가자
달아 달아 맑은 달아
저 바다 건너면

내 조국 내 고향이 있다
내 3천리 강산을 빛쬐다오
옛정 어란 나의 회포를 전해다오

万靈壇

|| 모든 사상을 초월하여 항일희생자를 기념하자 ||

万靈壇 (6월18일 11시)

국운이 불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복운동에 참여하였으나 도중 수많은 인명이 도처에서
남모르게 여러가지로 수난 당하였으며 그수는 헤아릴 수 없을만치 많았다。

日本 각지나 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당시의 신문에 게재된 사실도 있으나 滿州、시베리아、華北、
華中 특히 上海、福建、九江 일대의 경우에는 도저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中國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입을 열면 형제국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운명이 급한데다가 여
력이나 여가도 없이 내외환으로 오늘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수많은 우리 독립군의 청년들이 黃浦군관학교나 中央군관학교에서 배우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
던것도 당시 우리의 적이 韓中公동의 적이였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도 몹시 불투명한 상태로 끝났지만 벌써 25년이 경과되었다。 과거의 지도자층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상, 또는 석물, 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청년들 중에서 용명을 떨치며 홀로 섭섭하게 교수로 세상을 떠난 우인, 동지들은 지금도 감옥묘지 또는 풀이 우거진 舞鶴재등지에 방치된채로 기념도 記名도 되지 않고 있다. 너무나도 한심하고 통탄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 자신도 벌써 늙었기에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용사들의 기명만이라도 집성하여 조그마한 万靈壇을 청소년들이 잘 모이는 경향각지의 운동장 한구석에 건립하여 이 민족의 행운과 국방을 담당할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싶다.

그밖에도 될수만 있다면 기성인사들이 과거의 일을 설명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의를 표하도록 하는것도 좋을 줄로 생각된다.

사상을 초월해서 구국운동에 희생된 사람들을 영원히 기념하려는 뜻에서이다. 제1차적으로는 京畿지방、水原、大邱、全州도 좋고 南原도 좋으나 특별히 정부로부터 토지를 얻을 필요없이 현재 청소년들이 운동하고 노는 장소의 한 모소리에 조그마한 壇을 건립하였으면 한다.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지면 더욱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記名된 것만을 보관하기만 하여도 좋을 것이다.

惡病滿腹 軫不寢 모진 병에 잠 못이루어 전전하는데
不休 瞬間 竜虎戰 그 순간마다 엇갈리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구나

어머니를 생각한다

|| 아무래도 독립운동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

6월 19일 밤

조용히 내리는 비

밤 잠을 못자네 어린시절의 어머니 생각에 골몰하며 날이 새네

武蔵野의 矢口渡 나루

먼 옛부터의 나루에는

어제 밤부터 가는 비가 끝없이 흘러내리네

악마는 아직도 자는데

부지런한 새들은 아침을 찾아 해매이는 것일까

째채워 날아간다.

비, 비여 더 많이

맑은 비여 내려다오.

이 오장육부에 접점이 숨여든 병을 깨끗이 씻어다오.
부탁한다.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

젊어서 과부가 된 어머니가 6살 먹은 내가 중병으로 생사불명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진심으로 神에게 빌었을 때와 같이 지금 이 아침에 나도 빕니다.

신령님.....

불초 이 자식은 지난 옛일을 잊지 않고 가슴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자식 心昌이 어머니의 슬픔을 알게 된 것은 음력 3월 10일 이 세상에서 단한분인 아버지(父 28세, 母 32세) 이 돌아가셨을 때 밭에서 풀을 뽑다가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했었다라면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안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며 서로 불붙고 종일토록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신이었습니다.

이와같은 나날, 그런 시대에서 소년시절 3·1 독립운동의 맹렬한 민족항쟁광경을 경험하였다. 불초 이 자식의 가슴에는 어언간 독립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소년은 문맹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자면 이 공책을 다 메워도 모자라지만 최후의 이별을 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새롭기만 하다.

平壤、東京、中国으로 떠날때였습니다。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만 있기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으면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큰형과 약속하고 큰형도 모르는척 해주어서 가만히 집을 빠져나와 日本을 향하여 떠난것은 가을도 늦은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허드레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3·1 독립운동을 체험하신 어머니는 그와같이 곤난한 운동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

자마자 平沢역전에 가서 머리깎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대로 日本을 향해 떠나버리고 말았다。

6월 20일

옛날 아침 저녁으로 서쪽에 보이던 아소산이여!

오늘도 옛날과 같이 영원의 연기를 종천에 내뿜고 있느냐

물론 지금도 변함없이 日本에서 제일가는 위용을 자랑하고 세상사람의 칭찬을 받고 있겠지.

그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白河江변(古戰場跡)에 높이 솟은 붉은 벽돌집(刑務所) 그 집속에서 일하고 있던 나의 감방은 2층 301호였는데 이 병실의 호수는 우연하게도 301호이다.

白河江은 그 이름도 아름다운 駿鹿평야를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일까.

그 옛날과 같이 시적이고 서정적인 것일까

그 빨간 벽돌집은 인간사회의 치욕이다(元心昌선생은 이 형무소에서 13년동안 있었다)。

운명인지 우연인지는 몰라도 301호는 나의 등(背)번호인 것도 같다.

白河江 301호에서는 피골이 상접한 몸이었지만 들어갈 때나 살아가올 때나 아무도 없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가을비(雨)뿐이었다(1945년 10월 10일 백아더총사령부 정치범석방령에 의해서 13년만에 출옥하던 날)。

監獄의 追憶

॥ 붉은 벽돌집은 인간사회의 치욕이다 ॥

그후 25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언제나 오는 것일까. 남북으로 국토와 민족이 분열된 후에는 무엇이냐 비참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4,000만 동포에게 좌시와 묵인을 강요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약자의 입장에서 있다고 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에 알리고 우리 형제들을 일깨워주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의 비극의 원인이나 책임이 우리들 자신의 과오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 적수공권으로 일제 군마의 총검앞에서 결사적인 항쟁을 하였었다.

그러나 우리가 우매했던 것은 제 2차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역력한 참가와 협조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세사상 최악의 입장 즉 국토분단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미·소양국의 책임은 물론이지만 우리들 자신도 공상에 불과한 외국에의 의뢰심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도 미·소양대진영은 자국의 입장과 많은 사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약육강식하는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아무리 강국이라 하여도 결코 영원히 강국인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역사에는 이곳 저곳 여러곳에 강국의 무덤이 방치된 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6월 20일

李世元동지(民團新編縣本部 단장)에 대해서는 우리 한교 모두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력과 성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어야 할 것이다.

백만번 표창을 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우는 활력은 있지만 높고 시력이 감퇴한李동지의 신상에 불의의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李兄 용서하십시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년세세 북풍이 몰아쳐 살을 깎는듯한 新編부두에서의 노고는 얼마나 전디기 어려운 것이었겠습니까.

동포형제여러분 남부여대하고 어린자녀의 손을 끌고 지금은 갈곳이 못됩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오하며 울음소리와도 같이 터져 나오는 李형의 목소리는 지금 이 병상에 누어 있어도 心畵의 귀에 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찬바람 휘몰아치는 그 부두에서 오늘도 내일도 절규하는 李형의 거상은 바로 우리 전동포의 숙임 없는 표상입니다. 아아 오늘도 내일도 끊이지 않는 통탄의 외침은 바다를 건너고 38선을 건너서 실망에 신음하는 북송교포들에게 알려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心畵

6월 22일 아침 4시 반

고요한 이 공장지대에 사는 새들은 먼동이 트자마자 창가에 날아들어 그 옛날 그들이 놀던 나무나 들판이 인간들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호소하듯이 병상에서 창을 내다보는 인간의 시선을 끈다. 그렇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다. 나쁜것은 너희들이 놀고 머물던 등지와 수육장 유희장등 모든것을 틀림없이 인간이라는 괴물이 과학의 힘을 빌려 모두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간 자신이 자연을 난용한 대가로 자신의 파멸을 찾아올지도 모르게 되었다. 새들의 아침마다의 호소는 악마들에게는 필요없는 것이며 머지않아 염라대왕 앞으로 가면 내가 전하여 줄터이니 지금의 나에게서는 너무 심하게 굴지 말아다오.

6월 22일 5시 15분

물욕도 권세욕도 모두 버려라! 물욕 권세욕을 모두 버리면 형제간의 우애도 두터워지고 집안이 평화로와 좁은 방에서도 사이 좋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권세를 누리던 자 그 누가 영원한 자가 있었던가. 그런 자들의 비극은 인류사상 최악의 기록만을 남기고 후세인으로부터 치욕을 당할 뿐이라는 데 있다 (絶筆).

遺

書

|| 苦痛에 허덕이는 民族의 幸福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게 大罪 ||

1971년 6월 21일 밤 11시 반

李榮根 선생에게

내가 만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선 몸에 향수를 뿌려주시고 20여년전 柳思錫군이 고국에서 찾아와 선사한 고운 모시 한필이 집에 있으니 그것으로 몸을 휘감어 주신다음 될수만 있다면 崔大師(大行寺의 崔裕尊住持)에게 양해를 얻어 그 뒷산에 깊이 묻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독한 나를 춘추 계절따라 찾아오는 나비와 새가 위로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비석도 이름도 필요없습니다. 내 신체는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岩崎 선생은 있는 힘을 다 하고 있으나 나는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불행한 마음에 비치는 것은 고통에 허덕이는 민족의 다행한 앞날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대죄를 지고 민족의 선조앞으로 가는것이 불안할 뿐입니다.

밤도 깊었으므로.

心書(遺稿)

元心昌生先의 鬪爭과 基本精神

李 榮 根

내가 선생을 처음 만난것은 1958년 5월 李承晩政權하의 韓國에서 日本으로 망명한후 채한 달도 못되는 어느날 神田네거리에 있는 어느 선술집 2층에서였다.

당시 선생은 1955년경부터 시작한 統一協議會運動이 좌우익의 협력을 받아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서 수개월에 한번정도로 통보비슷한것을 퍼내면서 「統協」의 간판만을 유지하고 있을 무렵이어서 선생과 나는 만난 그날부터 우선 통일운동의 선전, 계몽을 위해서 신문을 발간하고 그것을 토대로 장차는 통일추진조직을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태어난것이 「統一朝鮮新聞」으로 그후 13년, 지난 7일 선생이 돌아가실때까지 나는 선생결에서 미미하기는 하나 같이 통일운동을 계속하여 왔다.

그간 1961년부터 약 7년동안 월간영문선전지 「ONE KOREA」를 발행하고 1964년부터는 「統一朝鮮年鑑」을 발간하여 3권을 간행하였고 1965년에는 「韓國民族自主統一同盟日本本部」를 다시 66년에는 「韓國民族自主統一青年同盟」을 조직해서 그런대로 통일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선생이 돌아가신 그날까지 13년 동안은 4·19혁명 직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통일

운동의 암흑시대였다.

권력계층의 박해는 준엄한 것이었으며 시세에 밝은 주위사람들의 눈은 차가웠고 방해도 극심하였다.

신문의 창간호부터 인쇄되는 동안 자금조달로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될만치 고난속에서 출발한운동이었고 전디기 힘든 나날 그리고 고투의 연속이었다.

나 자신 몇번씩이나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허물어져 가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신것은 선생이었다.

몇번인가 수도없이 「군참새」집에 앉아 잔술을 권해가면서 이보다 더 힘든 시대를 견뎌나온 내가지 있지 않는가 라고 격려하신 선생님 그때의 선생님의 눈은 부드럽고 자애가 가득 차 있었으며 평생을 통한 선생님의 애국정신을 엿볼수 있게 하였다.

自主獨立鬪士 平和統一의 先驅者

14세로 3·1독립운동에 참여하신후 만 65세로 영민하실때까지 참으로 50여년을 한결같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여오신 선생님은 문자 그대로 회세의 애국자였다.

반세기에 걸친 선생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은 크게보아 3시기로 나눌수 있다.

1923년 17세로 도일 면학하면서 무정부주의운동을 통한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한후 1933년 高白貞基의사와 더불어 주창日帝공사에 대한 천주의 철추를 가하려든 세칭 「6·3亭事件」으로 일

정에 체포되어 1심에서 사형 최종심에서 무기징역 복역중 재일시대의 사건으로 5년징역을 가형받고 8·15해방을 맞아 1945년 10월 출옥하실 때까지의 투쟁은 항일독립운동 바로 그것이었다. 그동안 선생은 20대에서 30대까지의 청장년기 20여년중 15년 남짓한 세월을 옥중에서 고생하셨다. 다음으로 1945년말부터 10년간, 선생은 그동안 선생이 일시귀국하셨을 때에는 강대국들이 우리민족에게 강요하려는 신탁통치의 반대운동에 몸바쳐 투쟁하셨고 46년 다시 도일하신 후에는 「민단」을 창설하고 초대사무총장으로 또는 중앙단장으로 당시 심한 혼란상태에 놓여있던 교포사회의 안정과 수습 그리고 국위선양에 진력하셨다.

이 시기의 선생의 활동은 조국의 자주독립완수에 집중되었다.

끝으로 1955년부터 71년 7월 선생이 서거하실 때까지의 16년간은 선생의 말년을 장식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시기였다.

1955년 국내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조국평화통일추진체인 「조국평화통일추진협의회」가 일본에서 발기되자 선생은 대표위원겸 사무국장으로 취임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셨다.

그러나 「통협」은 1년도 못되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쇠퇴하여 선생 혼자서 여러해동안 통일운동의 명맥만을 유지시켜 왔었다.

그후 1959년부터는 새로운 진용으로 통일운동을 진행시켜 통일이론의 정비와 동포대중의 계몽선전 그리고 추진조직의 확립을 위하여 항상 전투에 서서 지도하셨다.

선생은 우리 조국통일운동의 수호자였으며 통일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간 선구자였다.

殺身為國의 化身

퇴조기의 정치운동을 지켜나가는것 그리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향의 정치투쟁을 개척해나가는 일의 고난은 아는사람만이 알수 있는 일일 것이다.

선생은 항상 이와같은 간난을 헤쳐 나가셨다.

선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신명을 바쳐 일하는 희생심 밖에 없었다.

선생이 일제시대에 무정부주의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길을 선택한것도 그러기 위해서였다.

조직행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므로서 쫓기의 기회를 잃고 지도층의 결단을 기다리다 못해 동포대중으로 하여금 체념의 심연에 빠져들도록 하였다.

「테로」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몸소 적에게 돌진하므로서 대중의 가슴속에 잠들어있는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었으며 세계에 저항민족의 존재의식을 심어 놓았다.

그래서 선생은 자진하여 中國각지의 日帝기관에 폭탄을 던져 왔으며 「63亭」의 거를 기획한것도 선생이 지닌 살신위국의 정신을 몸소 발휘하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선생의 기질은 해방후 조국이 연합국 또는 타국에 의하여 신탁통치 되는것을 허용할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어떠한간에 선생에게는 독립이나 그렇지 않으면 투쟁이나의 두 가지 길 밖에는 없었다. 그러기에 선생은 46년 재차 도일하신 다음에는 반탁(反托)을 외치며 「新朝鮮建設同盟」 「民團」

을 창설하고 즉시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을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을 눈감고 보아 넘기는 그런분은 아니었다.

선생은 6·25동란이 발발하자 참략자의 응징에 나섰고 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음직임이 보이자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집권자들에게 항거하였다.

선생의 항일투쟁운동→반탁자주독립촉진·완수운동→조국평화통일운동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선생은 국수주의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저명한 무정부주의자였으며, 겸허한 민족도의를 제창한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를 지닌 인물이었다.

해방직후 46년초 당시 조선인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張赫由가 담당하고 있는 朝日新聞의 「聲」란에 실린 다음과 같은 투서는 선생의 사람됨의 일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일 상경하여 신조선건설동맹의 元心昌씨와 회담하였다.

「조선인에게는 3식 4흡배급의 특전이 있는가」라는 필자의 말에 「없다」는 元씨

「그런 요구를 제기할 생각은 없느냐」 「없다」는 元씨의 담담한 표정에 필자는 뜻밖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이니 당연한것이 아닌가」라고 추구하자 元씨는

「실후 그런 특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사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옆에 사는 일본인이 2흡1작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들만 4흡을 받아 배불릴수가 있겠습니까」라며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얼굴을 붉혔다. (원문대로)

絶筆은 無慾

이와같은 지순무구한 지도자가 지금은 가셨다.

벌써 그 온화한 얼굴도 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하면 입에서 새어나오던 로레라이의 노래도 들을수 없게 되었다.

65세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

선생은 앞으로도 20년은 더 사실수 있는 좋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선생의 일은 지금부터라고나 할까

그런 선생이 조국통일이 성취되어 귀국하는 날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국의 시골 「矢口渡」에서 돌아가셨다.

항상 신변에서 일하며 모시고 있든 내가 좀더 일찍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여 드렸더라면 이와같은 결과는 오지 않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면서 그 회환은 풀을 길이 없다.

선생은 나에 대한 유서에서 민족의 다행을 못보고 가는것이 大罪라고 말씀하시고 절필에서는 無慾이라고 쓰셨다.

운동의 스승이며 마음의 형인 선생과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 마음의 아픔을 가눌 길이 없다.

曉雨肅條矢口渡
恨君淒絕魂不歸
遺望西天思故國
七月江風含怨悲

속속히 비내리는 矢口나루에서
처절한 한을 품은 그의 혼은 가셨네
西쪽 하늘 밑 고국을 못잊어 하며
7월의 강바람도 그의 비원을 품었구나

義士 元心昌과 나

秋 山 清 (評論家)

上海에서의 그事件 그 사람

분명치 않은 기억이기는 하나 1946년 2월인가 3월 어느 날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사무실.

東京茅場町の 빌딩 4층의 조그만 사무실에 그는 확실히 왔었다.

당시 日本아나키스트연맹 경성준비 때문에 내 사무실에는 오후 5시부터는 「아나키스트」의 선후
배들이 東京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神戸、大阪 등지의 사람들까지도 모여 들었다.

불타버린 자리에 운 좋게 남아있는 이 빌딩의 내 사무실에는 그때 岩佐作太郎、近藤憲二의 두 선
배와 그밖에 二見敏雄가 와 있었다.

「元心昌이다」라며 소개한 것은 二見敏雄이었다.

二見은 년전 10월 宮城형무소에서 나온 후 자주 내 사무실에 들리는 터였다.

아마 元心昌과는 이보다 먼저 어디에선가 알았던 모양이었다.

물론 나도 元心昌이라고 들으면 上海의 그 사건의 그 사람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첫 인상은 그 당시가 생각되기도 하여 준엄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끝내 이유를 알지 못하였으나 과묵한 사람이었다.

紹介받은 두 사람이 모두 無期囚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는 전혀 잊어버리고 말았으나 소개받은 사람이나 소개한 사람이 모두 무기수였다는 사실은 감회깊게 내 기억에 남아있다.

「아니기즘」의 회생자들을 추도하는 뜻의 집회가 世田谷區 深澤의 吉田一씨의 「콩」공장에 열렸을 때 그곳에서 오래간만에 그를 만났는데 먼저번에 보았을 때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살이 찌서 무게있게 보였다.

이 회합은 平岩嚴 吉田一 倉地啓司 등과 더불어 주선하는 일을 맡아 보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람의 출석은 몹시 반가웠다.

그후에도 石川三四郎과 그밖에 선배들의 모임에서 몇번인가 만났었다.

日本아나키스트연맹이 분열하여 자취작용이 일고 있었을 때 그는 나에게 몇번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주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크고 눈앞에 있다. 그런데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없는 것일까?」

이 말은 나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다.

조선통일운동을 좌우의 「틈」을 헤쳐나가며 하는 그의 눈에 조그마한 운동을 하면서 대립하고 있

는 것을 볼 때 다 쓸데없는 짓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내 집이 競売되었을 때의 생각

나는 지나는 길에 四谷의 「통일조선신문」 사무실에 가끔 들렀다.

어느 때는 힘들여 만든 「통일조선년감」을 기증받기도 했다.

나의 왕래는 그 정도의 것이었다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두 가지쯤 극히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일이 있다.

10년전쯤 「단가입문」이라는 책을 펴냈을 때 「단가를 공부하고 있는 소녀가 있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부탁받아서 그 예쁜 소녀와 만나고 작품도 보았으며 질문에 대답해 준 일이 있었는데 元君의 친척이라고 하던 기억이 있다.

또 하나는 이것도 10년전쯤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내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는지 걱정하며 찾아와서 그가 잘 아는 부동산업자를 소개해 주어서 끝내는 락찰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어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으나 義士 元心昌社會葬 식장에서 참으로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혼자서 갖게 하였다.

日本の 운동에 대한 그의 말을 나는 오래도록 기억할 작정이다.

中國에서의 鬭爭時代

朴 基 成

(南華韓人青年聯盟同志)

내가 元心昌동지를 알게 된것은 1920년대초 日本 東京에서였다.

만학의 뜻을 품고 일본에 온 나는 고향에서 4년제 보통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입학자격을 얻기 위해 關東 제4소학교의 야간 속성과에서 1년동안 배우고 다음해 神田의 開成中學에 입학하였다.

동교에는 약 4년동안 다녔으나 결국 졸업을 못하고 그만 두었다. 경제적으로 곤란해서 학비를 계속 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젊은 마음의 소산이라고나 할까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 공부할 열심히 해서 무엇에다 쓰랴 열심히 공부해 봤잖아 결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우수한 사용인이 될뿐이 아니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에 잠긴 것도 학업을 중단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이와같은 생각을 하게 된것은 당시 日本에서 대학을 졸업한 동포청년들이 취직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때의 내 눈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일수록 우수한 사용인이 되는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았다. 다.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같은 無政府主義者の 길로

당시 벌써 공산주의의 영향력도 만만치않아 민족주의를 우익이라며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산주의운동은 민족의 완전독립을 열원하는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정부주의계통의 자유청년연맹에 가입하고 무정부주의운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당시 元心昌동지는 같은 무정부주의계통의 黒友聯盟에서 지도적간부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같은 운동에 종사하며 鷄林莊(東京、中野区野方町)에 있는 조선인학생숙소. 한때 조선인무정부주의자의 거점이었고 숙소감독은 日本人으로 유학생의 동정을 살피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었다.

그후 조선인무정부주의자추방계획에 따라 相愛會 라는 폭력단을 투입 鷄林莊事件이라고 불리우는 대난동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다)에서 기거를 같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元心昌동지와는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가 좀더 가까와 진것은 그후 중국에서 몸바쳐 같이 투쟁하였을때였다.

나도 10년이 넘는 日本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우선 귀국하였다가 1931년 中國으로 건너갔다.

元心昌동지도 中野형무소에서 예심중 보석으로 출감. 나와 전후하여 중국에 왔다.

上海에서 再會 精力的으로 活動

동포들이 전하는 소식으로 元心昌동지의 동정은 알고 있었으나 上海의 南華韓人青年聯盟(1928년 3월 창립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이 1930년 4월에 개편, 개칭된 것)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놀라기도 하였으나 몹시 반가웠다.

당시의 일들을 말하기전에 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저 한다.

나의 본명은 朴基成인데 그때 중국에서는 李守玄으로 행세했다.

이는 당시 日本警察의 調査, 追跡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명을 쓰는 것이 좋다는 李會榮氏(李始榮氏의 장형)가 지어준 가명이었다.

내 자신의 이름을 이와같이 설명하는 것은 해방후 韓國에서 간행된 獨立運動史等에는 李守玄또는 李守鉉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딴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20대 청년이었던 우리 두사람은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 선배동지들과 힘을 합하여 정력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각종 기념일에 격문을 살포하는 것은 물론 각종 출판물을 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항일독립투쟁을 위한 계몽선전을 하였다.

이에 쓰이는 자금은 주로 上海에 거주하는 동포실업가들로부터 각출하였는데 그와같은 일도 여간 힘든것이 아니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는 10여명의 동지들이 같이 기거하고 있었으나 그 생활은 몹시 궁색한 것이었다.

당시 中國에서는 실업자가 많아서 그곳 中國人 자신들의 생활이 곤란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인 우리들 그것도 망명혁명집단인 우리들의 생활이 곤색한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齒)를 악물고 투쟁하였다.

滿州事變과 櫻田門爆彈事件

마침내 세태도 격동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1931년 9월 18일 滿州사변이 발발하고 日本의 中國침략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1932년 2월 日本은 대규모의 육해군을 上海에 파견하고 20일에는 上海事變을 일으켰으며 3월 1일에는 滿州에 괴뢰정부를 세우고 滿州國 건국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日本의 침략기도는 滿州에서 그치지 않고 中國전토에 미칠것이 분명히 들어나고 있었다.

우리들의 조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민족을 노예로 삼은 구적 일본제국주의의 이와같은 부당한 침략의 확대는 항일독립투쟁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청년들을 크게 움직여 놓았다.

그제 1호는 李奉昌義士의 櫻田門폭탄사건이었다.

李奉昌義士의 의거는 「물건은 언제 팔리는가」라는 암호로 미리 알려져 있어서 우리들은 의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사가 보도되었을때의 충격은 우리들을 한없이 흥분시켰으며 전원이 생명을 받쳐 조국광복을 위해서 싸울것을 맹서하도록 하였었다.

B·T·P 結成 天津事件敢行

정세의 이와같은 진전은 중국민중들 사이에도 항일기운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중에서 무정부주의자의 국제적유대의 강화도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31년 11월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韓·中·日·台灣·安南·印度 比律賓의 無政府主義者들에 의해서 조직된 國際組織)의 간부 王亞樵(中國人) 白貞基(韓人) 佐野一即(日本人) 3인의 주도하에 직접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무정부주의자의 국제적비밀결사 B·T·P(블랙 테로리스트·파티) 일명 「黑色恐怖團」이 결성되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의 맹원들은 B·T·P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하였다.

B·T·P가 이루어 놓은 최초의 대사업은 1932년 3월의 天津폭탄사건이었다.

이 天津사건은 그해 2월 上海사변을 일으킨 日本의 中国북부침략의 군사적동맹인 天津항을 전면적으로 파괴하여 日本의 군사작전에 대타격을 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같은 목적으로 北京에 있는 지사들과 연락하고 韓·中·日 3國의 지사 7명이 일단이 되어 1932년 3월 天津에 잠입하였다.

때마침 天津의 日清기선부두에는 군수물자와 군대를 실은 배가 입항하고 있었고 일본영사관부근 숙소에는 1개여단의 육군과 육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서 7명중 白貞基、田華民(佐野一即의 假名) 2명은 일청기선부두、李容俊(동지들 사이에 서는 千里芳)、柳基文 2명은 일본영사관을 그리고 元心昌、李康勲、陳樹芳(中國人) 3명은 日本兵營을 맡아 동시폭파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조된지 오래인 폭탄이었으므로 개중에는 불발탄도 있었고 파괴력도 약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수 없었으나 日清汽船 1척을 파괴하고 사상자도 내었다.

日本領事館은 식사시간에 식당을 노려 폭탄을 던졌으나 외벽과 창을 파괴하는데 그쳤고 병영에서 는 불발에 그쳤다.

元心昌同志는 그후에도 그때 폭탄이 불발이었던 것을 끝내 아쉬워 하였는데 이 사건에 참가한 다른 동지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어도 이 사건은 華北一帯의 보도기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중국민중을 크게 고무시켰으며 항일기운을 높이는데 적지않게 공헌하였다.

上海虹口事件

天津事件이 있었던 그해 4월 29일 上海虹口공원에서 尹奉吉義士에 의한 폭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事件은 日本天皇의 탄생일인 그날 日本의 軍·官·民 약 10만명이 모여 虹口公園에서 경축식

전을 거행할때 이들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으로 이 폭탄세례에서 일제의 上海과견군사령관 白川대장이 목숨을 잃고 제3함대사령관 野村中將, 제9사단장 植田中將, 駐中公使 重光葵 등 관민다수에게 중상을 입히므로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며 우리민족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尹奉吉의사는 이 사건으로 사형당하였으나,尹의사의 이와같은 성공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으며 그의 행동은 우리의 모범으로 삼게 되었다.

天津사건이후 일제의 강압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들 B·T·P 주변에서 강화되었다.

그것은 일제의 밀정들이 우리들의 동정을 세밀히 탐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들은 덫을 놓고 이 덫에 걸린 동지를 자백시킨 다음 동지의 손으로 처단하도록 하였다.

큰일을 하려는데 밀정에 의하여 우리의 일이 방해 당하는것은 참을수없는 일이었으며 당시의 사태는 참으로 먹느냐 먹히느냐 바로 그것이였다.

總動員으로 日帝의 秘密謀議를 探知

그러던중 해는 바뀌어 1933년에 접어들자.

滿州事變을 성공적으로 매듭진 日帝는 당시의 육군대신 荒木貞夫大將을 통해서 4,000만원이란 거액의 기밀비를 駐中日本公使 有吉明에게 주어 매국적인 中国人 親日政客·軍人을 매수하고 중국 전토를 만주의 재관화하려는 음모가 진행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B·T·P는 총동원해서 이의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元心昌동지로부터 3월17일 有吉明일본공사가 일본의 정객과 참모본부원들과 같이 중국인 친일정객, 군인등 100여명을 上海虹口에 있는「六三亭」으로 초대해서 매국적음모를 밀의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입수되었다.

B·T·P는 곧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석상 白貞基의사는 中·日양국의 저물 음모자들이 한자리에 모인것을 이용. 尹奉吉義士의 폭탄사건때와 같이 일시에 전멸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마침 尹義士가 사용한 폭탄과 똑같은 폭탄이 한 개 있으니 天津에서와 같은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제의하였으므로 그렇게하기로 즉결되었다.

이에 따라 곧 실행위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참가자 10명중 柳子明, 鄭華岩, 두사람은 년장자일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도적 간부인 판제로 후일의 활동을 위해서 제외하고 李圭浩는 년소자로 제외되었다. 결국 나머지 白貞基, 元心昌, 李李康勲, 金芝江, 嚴亨順, 朴基成, 李会榮 7명중에서 실행위원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서로 「내가 결사적으로 실행하겠다」「나야말로 적임자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날의 회의에서는 결정을 보지 못했다.

다음날 밤 늦게부터 시작된 회의에서도 「내가 하겠다」「나를 시켜다오」7사람이 서로 고집한 끝에 제비뽑기로 결정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제비」는 鄭華岩동지가 만들어 자신의 종절모자속에서 섞어 한사람 한사람 뽑게 되었다.

모두 자기가 뽑히지 않을것을 두려워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얼굴이 창백하리만치 긴장하고 숨을 몰아쉬며 「제비」를 뽑았다.

그 결과 실행위원으로 白貞基、元心昌、李康勲 3인이 뽑혔다.
뽑히지 못한 동지들은 모두 낙담하였다.

한결같이 民族에 발친 50年

元心昌先生 略歷

先生은 1906년 12월 1일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조국의 운명이 위태로울때 水原의 남쪽 경기도 平沢郡 彰成面 安亭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선생은 형제자매와 더불어 성장 하였으며 1914년 平沢普通學校에 입학 18년 졸업했다.

반일제 구국의 풍운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선생은 1919年 어린 14살의 나이로 3·1 독립운동의 와중에 뛰어들어 평생 잊지 못할 감명을 받았다.

抗日闘争에 投身

1920년 선생은 독립운동투사를 많이 배출한 서울의 中東學校에 입학하였으나 도중 독립투쟁에 전념할 것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23年 3月 日本 東京으로 건너가 日本대학 사회과에 입학하였다.

日本大学에 入学하자 마자 先生은 無政府主義運動을 통해서 獨立투쟁을 하고저 朴烈씨등이 결성한 「黒友會」에 가입하고 무정부주의계의 최초의 노동조합인 「東興労働組合」에 참가하였다.

이때 동지로서는 후우회를 통해서 張祥重、鄭泰成、洪欽佑、陸洪均、李弘根、崔圭德、李星泰、韓見相、金鉄、朴律來、栗原一夫、吉川時夫 등이 있었고 「東興勞動組合」 쪽으로는 丁贊鎮、梁一東、梁相基、陳哲、李何中 등이 있었다.

이때의 선생은 혈기왕성한 때로서 무정부주의 항일투쟁의 중심인물로서 26년5월 「黑色運動社」 동년 11월 「黑色戰線連盟」 그리고 직접적인 파괴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不逞社」의 재건과 기관지 「黑友」의 제2호발행, 27년2월 「黑風會」 28년1월 「후우연맹」 등을 결사 일제의 탄압을 피해가면서 직접적인 실행사로 일제에 타격을 줄것을 벌여왔다.

그러나 29년4월 선생은 「동경유학생학우회사건」으로 체포되어 일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31년4월 예심중 中野형무소를 보석으로 출옥하자 보다 과감한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日本을 탈출 北京을 거쳐 上海로 갔다. (25세기)

日 兵營에 爆彈

31년4월 上海에 도착한 선생은 「남화한인청년연맹」(1928년3월에 창립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의 30년 개편, 개칭된것(의 강화에 힘써 鄭華岩、柳子明、白貞基、李康勲、田理芳 柳基文 등 동지들과 함께 동연맹의 핵심체를 구성하였다.

다시 동년 11월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韓·中·日·安南·印·比 등 7個 민족의 무정부주의자들 로구성)의 간부들이 「흑색공포단」(B·T·P)을 조직하자 반제국주의의 직접행동을 목표로 삼아

32년8월 동국에 입국 白貞基、柳基文、李容俊、李康勲、陳樹芳、田華民과 함께 중심인물이 되었다 「흑색공포단」은 지난해 일어난 만주사변이후 일본의 중국침략이 본격화되자 한국인에게 구조된바 있는 독립인폭탄제조기술자의 협력을 얻어 무기를 입수하고 天津의 일본영사관 인근병영 일청 가선부두등을 차례로 폭파하여 일제당국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六三亭義拳

33년3월 상순 선생등 흑색공포단은 주중국일제공사 有吉의 음모에 대한 정보를 토의하였다. 有吉공사는 日本、中国의 유력자 100여명을 上海 武昌路에 있는 「六三亭」에 모아 친일중국정객을 매수 滿州 및 熱河지방에서 대일무저항주의를 채택하도록 채동하고 있었다.

33년3월17일 선생은 白貞基、李康勲과 같이 권총2정, 폭탄1개, 수류탄4개를 품에 숨기고 「六三亭」부근 중국요리점 「松江春」에서 有吉공사의 통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무정부주의자 大井 모의 밀고로 상해영사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때 선생의 나이 27세였다.

체포된 선생을 비롯한 세사람의 투사는 치안유지법 폭발물취체규칙위반 살인에비 기물파손등의 죄명으로 기소되고 몸은 長崎해상형무소로 압송되어 유치되고 말았다.

선생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를 白貞基는 무기, 李康勲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民團을 創設

8・15해방을 형무소에서 맞은 선생은 1945년10월10일 맥아더사령부의 정치범석방 명령으로 출옥하자 옥고로 쇠약해진 몸을 돌보지 않고 재일동포의 지도에 나섰다.

1946년 1월20일 선생은朴烈과 같이「모스크바 3상협정」에 의한 조선신탁통치를 지원하
는「朝聯」지도부와 손을 끊고 신조선건설동맹을 창설,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위원장 朴烈)
「建同」은 그해 12월 반전적으로 해소하고 조선건설촉진 청년동맹과 아울러 조선거류민단을 결
성하였는데 선생은 주동인물의 한사람으로 초대 사무총장에 선임되었다。(48년 한국정부수립후
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

그후 선생은 민단 중앙 부단장, 고문을 역임하면서 민단발전의 선두에 섰다.

50년6월25일 조국해방전쟁을 부르짖는 북조선인민군의 남침으로 6・25동란이 발발하자 선생
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자들에 대한 분노를 씹어가면서 51년4월 민단회장에 선출되자 침략
자의 응징과 한국방위를 위해 힘을 기우렸다.

平和統一運動

그러나 1953년7월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포성이 멎자 1954년말경부터 선생은 이제까지 대
적해오던 민전계 인사들에 대해서 손을 잡고 민족총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협력하자고 열심히 의

쳐 1955년 1월30일 민단계에서는 선생을 비롯하여 徐相漢、朴春琴、權逸、朴龍 그리고 민전계

(55년5월 총련으로 개칭)에서는 申鴻堤、李仲冠、南清榮등이 중립계에서는 李北滿、金三奎、徐
鍾實등이 모여서「祖國平和統一促進協議會」(처음에는 남북통일촉진협의회)「가 결성되었다.

「統協」은 6・25동란후 국내외를 통해서 처음으로 생긴 조직적 조국통일운동체였다.

1959년1월 본국에서 일본으로 망명해온 李榮根등 평화통일운동가의 협력을 얻어 평화확보와
평화적 자주통일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제몽지「統一朝鮮新聞」을 간행하였고 선생은 대표상임고
문으로 취임하였다.

1965년7월15일 선생은 한국민족자주통일연맹의 결성을 주도해서 대표의원에 선출되었고 66
년8월28일 제1회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육체적쇠약을 이기지 못하고 1971년7월4일 오전 3시51분 선생은 영면하
셨다(東京都大田區失口渡 岩崎内科病院)。

불과 40일 후에 남북적십자회담 실현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듣지 못한채……

「義士」追尊 社会葬으로

선생이 서거하던 7월4일 오후 안부를 걱정하여 근처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옛동지
들 및 재일한국인의 대표적 각계인사들에 의한 유지들의 모임에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최고의 영
예인「義士」칭호를 추존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동시에「재일본 한국인 사회장」으로 하도록 하

였다.

그것은 선생과 같이 「六三亭」 有吉주충일제공사저격사건」에 참여하였던 白貞基동지가 8・15 해방후 「義士」로 추존되어 「大韓民國 國民葬」으로 예우받은바 있으므로 그 사건에서 주동적 역할을 담당한 선생도 「義士」칭호를 부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고 장례도 이에 상응하는 「在日本 韓國人 社會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의 巨星 떨어지다

(統一朝鮮新聞「主張」欄掲載)

(1971年7月7日附)

1971년 7월 4일 새벽 3시 51분 元心昌선생이 돌아가셨다. 향년 65세 구한말 일제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조국전토에 먹구름이 깔려있던 1906년 경기도 平沢 벽촌 농가에서 태어난 선생은 일찌기 14세로서 3・1운동에 참가, 대망을 품고 바다를 건너 노동운동, 아나키즘운동을 통하여 조국광복운동에 분투하였다.

1931년,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 「남화한국인청년연맹」을 강화(強化)시키고 중국측과 제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33년 중국본토까지 침략할 것을 계획하고 채동하던 주충일본공사에 천주를 가하려고 고 白貞基義士등 동지들과 더불어 폭탄을 품고 대기중 일본영사경찰의 급습으로 체포되었다. 세칭 「六三亭事件」이다.

일본으로 압송된 선생은 1심에서 사형,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이 되고 다시 일본에 있었을 때의 「學友會」사건으로 5년형이 추가되어 복역중 1945년의 8・15해방을 맞았고 그해 10월 맥 아더사령부의 정치범석방명령으로 13년만에 출옥하였다.

수심회에 달하는 일경에 의한 구속, 10여성상을 넘는 옥살이에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워온 선생은 감옥에서의 고생으로 쇠약해진 자신의 몸은 돌보지도 않고 재일동포를 지도하여 왔으며朴烈씨와 더불어「民團」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위선양에 힘썼다.

6·25동란이 발발하자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분노에 불타「民團」단장으로서는 침략자의 응징과 조국 대한민국 호위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되자 또다시 민족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남·북 동포가「원한을 넘어서 다 같이 힘쓰자」고 외치면서 1955년 국내외를 통해서 처음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추진체인「통협」을 발족시키고 중앙대표위원겸 사무국장에 취임하였다. 그후 16년, 그간에는 본국에서 도일한 동지들과도 협력하여 조국에서의 평화확보와 통일추진의 기관지「統一朝鮮新聞」을 창간. 다시 1965년에는「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일본본부」를 결성하여 대표위원에 선출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至誠至純의 愛國者

元心昌선생은 지금 日本에는 없는朴烈、金大海 양씨를 제외하면 재일동포사회에서 일제시장이긴 세월동안 복역한 사람이다. 검속, 구류기간 까지를 합하면 무려 15년. 20대에서 30대에 걸쳐 청춘시절의 대부분을 철창 속에서 생활하였다. 이 조국을 위한 희생만으로서도 선생은 재일동포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지도자이며 실지에 있어 좌우에서 존경받은 분이다.

그러나 선생의 위대함은 선생의 복역기간이 길었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생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일신의 안위나 공리에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애족투쟁에만 전념하였다는 점에 있다.

다른 민족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민족의 해방투쟁을 돌이켜 보아도 일시적으로 독립운동에 종사하던 자가 적에게 굴복하여 투쟁전선에서 멀어져간 사람도 많다. 선생에게도 일제의 감언이설이나 회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길고 긴 옥중생활에서 투쟁의 앞날을 비관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많은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또 희생에 굴하지 않고 절개를 굽히지도 않았다.

사정은 다르지만 해방후에도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어 이념을 버리고 사리사욕에만 치우친 일이 많이 있다. 선생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명예, 재물, 지위등을 추구하였다면 손쉽게 그런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적빈에 만족하고 권력에 대해서는 정론으로 대항하여 왔다.

민족·국가의 재건과 전진 그리고 발전을 위한 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정세와 조건에 맞는 투쟁방법을 대중적으로 짜서 그 선두에 섰다. 이것은 지성지순의 애국자이며 항상 민족·국가사회의 진보를 기약하는 대중적 지도자가 아니면 안될 일이다.

具體的 進路를 明示

선생은 일제하에서 불굴의 독립운동자였고 국제적으로 저명한「아나키스트」였다. 해방후에 있어서는 자주독립 획득을 위한 탁월한 지도자였고 말년에는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평화운동가이며 동시에 평화통일에 신명을 바친 조국통일운동가였다.

평화운동가 통일운동가로서의 선생은 어디까지나 결백하였다. 그러기에 평화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아 넘기지 않았으며 통일을 입에 올리면서 그실 민족의 내분, 분열을 피하려는 무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1968년 북조선측이 「게릴라」를 서울에 침투시켜 소란을 피우자 선생은 바로 서울로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김일성정권의 반통일적 반평화적 망동을 규탄하고 경거망동을 책하였다. 그래서 「民團」과 더불어 대중적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지금 일본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문란케 하고 분규를 일으키는 무리의 정체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이와같은 선생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민족지도자로서의 선생은 어디까지나 무사한 입장을 지켰다. 그러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동족·동포애를 해치는 행동을 하는자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태도로 배격하고 조그만치라도 동포애가 싹을 조짐이 보이면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할것을 역설하였다.

선생이 말년에 현실적인 평화교란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으로 맞설것을 강조하면서 남·북정권이 서로 조국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것을 다짐하고 남·북 두 사회의 체질을 전쟁지향성으로부터 평화지향성으로 바꿀것을 외쳐온 것은 이와같은 선생의 민족적 신념이 정책면에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은 65년의 일생중에서 50여년이란 긴 세월을 한결같이 비운의 조국에 바친 유례에 없는 애국자였다. 그리고 반세기에 걸친 투쟁중에서 발견한 조국의 진로를 명확하게 제시한 민족의 거성

이었다. 지금이야말로 그 거성이 비원인 통일을 보지 못하고 영면하였다.

이 애국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민족의 별빛을 가려도 좋은 것일까 유지의 실현을 맹서하고 선생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

本國에서 旧同志들 參席

—義士 元心昌先生 社会葬—

統一 朝鮮新聞 記事

—詩人 李殷相氏는 弔歌를—

(1978年8月18日字)

元心昌선생의 사회장은 「義士 元心昌先生 在日本社会葬委員会」(代表委員 丁贊鎮) 주최로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東京 千代田区 九段会館에서 집행된다. 장례식에는 일본 각지로부터 선생의 일제시대부터의 옛 동지인 로 항일투사들과 민단관계자, 구「통협」관계자 그리고 재일한국인 사회의 각계 대표인사들을 비롯하여 선생의 평화통일 외침을 들어온 많은 재일동포 특히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매진할 결의를 굳히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회장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본국의 독립운동투사 교포출신 국회의원등 다수인사가 출석하겠다는 회답을 보내왔다.

특히 詩人 李殷相氏(獨立運動史編纂委員長・韓國時調作家會長)는 義士 元心昌선생의 조가를 지어 사회장위원회에 보내왔다.

元心昌의 옛 동지들로서는 「六三亭」사건의 배후 인물로 보여지는 鄭華岩씨 中國에 있어서의

동지였던 朴基成씨 「六三亭」 사진 3 투사의 한사람인 李康勲씨 또 日本에서의 무정부주의동자였고 「동흥노동조합」 간부이던 국회의원 梁一東씨 등이다.

記念事業委를 構成 「社会葬委」는 發展的으로 解散

統一朝鮮新聞 記事

1971年9月15日字

「元心昌先生在日本韓國人社会葬委員會」 제3회 회의가 11일 東京 千代田区 주부회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社会葬委」는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元心昌義士記念事業推進委員會」를 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회의는 鄭哲씨를 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장례경과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고 승인되었으며 안전 토의에 들어가 유가족문제, 묘지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이때 梁三永씨로부터 元의사의 옛 동지인 梁一東 국회의원이 본국에서의 묘지건설을 위해서 정부측과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이 회의에서는 묘지건설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社会葬委」를 제승한 「記念事業準委」에 서 맡는다는 조건을 붙여 「社会葬委」의 대표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義士元心昌先生記念事業推進委員會 準備委員會를 선출하고 「社会葬委」는 정식 해산할 것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해산에 앞서 金正柱씨로부터 「社会葬」에 힘써온 담당자 특히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元心昌義士의 略歴

△1906년 12월 1일 京畿道 平澤郡 彰城面 定安里에서 출생

△1914년 平澤普通學校(4년제)에 입학 1918년 졸업

△1919년 3월 14세 때 3.1 독립운동에 참여

△1920년 독립운동 투사를 많이 배출한 서울 中東중학교에 입학

△1923년 日本대학 사회학과에 입학. 무정부주의운동에 투신.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黑友會」(黑濤會)의 해산과 동시에 생긴 무정부주의단체)에 1922년말 참가 중심인물로 활약, 黑友會의 중심인물은 張祥重、鄭泰成、洪鎮佑、陸洪均、徐東星、徐相庚、金重漢、河世明、金正根、金亨潤、李弘根、崔圭悰、李星泰、韓晔相、金鐵、朴律來、栗原一夫、吉川時雄 등이다.

△1924년 在日本無政府主義者の 최초의 노동조합인 東興노동조합결성에 참여 간부로 일하며 노동조합을 통한 항일투쟁에 종사함(丁贊鎭、徐相漢、梁一東、陳哲、李何中、韓何然、梁相基、朴彈朴奉實、張露洪、閔興圭、閔魯鳳、李時雨、韓榮來 등과 함께)

△1926년 5월 崔圭悰과 더불어 東京에서 「黑色運動社」를 창립 독자적으로 활동을 개시, 그 해 11월 陸洪均과 같이 「黑色戰線連盟」을 조직 일본인단체인 「흑색전선청년연맹」에 가맹

△張祥重과 같이 朴烈系의 不逞社를 재건 기관지 「黑友」제2호를 발행

△1927년 2월 탄압을 피하여 「不逞社」를 「黑風會」로 개칭 무정부주의운동의 선전을 적극

적으로 함

△1928년 1월 15일 黑風會를 黑友連盟으로 개칭 주동적 역할을 함。

△1929년 4월 후우연맹원으로 활동중 동경유학생 학우회사건으로 체포됨。

△1931년 4월 예심중 보석으로 中野형무소를 출감。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하기위해 日本을 탈출。 北京경유 上海로 가서 유명무실화 되어있던 南華韓人青年連盟을 재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동연맹은 1928년 3월 창립한 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을 1930년 4월에 개편 개칭한 것임)。

△동연맹의 재건을 계기로 柳子明、鄭海里、鄭華岩등 동연맹의 창립자들과 더불어 각종 기념일마다 격문을 뿌려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함。

△1931년 11월 1930년 9월 18일 滿州사변의 발발로 日本의 대중국침략전쟁이 공공연하게 전개되자 남화한인청년연맹은 항일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北京에 있는「東北義勇軍後援會」 및 그밖의 항일단체와 제휴하여 과감한 무력투쟁을 전개 元心昌은 田基方、柳基文동지와 같이 天津의 일본영사관, 일청기선부두, 일본군병영 등에 폭탄을 던져 무력투쟁을 감행하여 일본당국을 괴롭힘。

△1932년 8월 黑色恐怖團에 입단 남화한인연맹 의 白貞基、柳基文、李容俊、李康勳、陳樹芳、田華民 동지들과 흑색공포단 의 핵심을 이룸。

注 흑색공포단(B·T·P)라는 단체는 1931년 11월 중순 韓國·日本·中國·台灣·安南·

印度·比律賓등 7개민족의 무정부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의 간부 王亞樵(中國人) 白貞基(韓國人) 佐野一郎(日本人)등 3인의 주도하에 결성된 국제비밀결사로서 현사회 의 모든 권력을 부정하고 인류가 인생의 모든면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수립할 것을 강령으로 삼는 직접과괴공작을 실행하려는 단체이다。

△1933년 3월 17일 일본제국의 육군대신 荒木의 명(命)을 받은 일본공사有吉明이 滿州와 熱河지방에서 무저항주의를 채택하도록 공작하기 위하여 일본인과 중국인 100여명을 上海武昌路에 있는 일본요정 「六三亭」에 소집 접대한다는 정보에 따라 元心昌은 白貞基、李康勳과 같이 「六三亭」에서 나오는 有吉일본공사에게 폭탄세례를 퍼붓기 위하여 그 근처에 있는 중국음식점「松江春」에서 기다리고 있을때 일본인무정부주의자 대정모의 밀고로 거사하기도 전에 체포되었음。

△1933년말 日本長崎裁判所에서 열린 일심공판에서 元心昌 사형、白貞基、李康勳은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그후 최종심에서 元心昌 무기징역 白貞基、李康勳은 각각 15년형을 언도받았음。

白貞基는 모진 고문으로 폐결핵이 재발 악화되어 1936년 5월 22일 41세로 옥중에서 죽었으며 8·15해방후 1946년 7월 4일 尹奉吉 李奉昌 의사와 함께 「3義士國民葬」으로 孝昌공원에 안장되었음。

△1945년 8월 15일 鹿兒島형무소에서 복역중 해방을 맞음。

△1945년 10월 10일 「맥아더총사령부 정치범석방명령」으로 13년만에 출옥 귀국함。

△1946년 다시 도일 朴烈씨와 함께 신조선건설동맹을 창설 부위원장에 취임。

△1946년 10월 5일 전기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재일조선거류민단」(대한민국정부수

립후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을 창설 초대사무총장에 취임。

△1947년 5월 민단중앙부단장에 취임 동년 12월 민단고문 취임。

△1948년 8월 독립노동당 일본특별당부결성

△1949년 4월 민단부단장에 취임

△1951년 4월 민단중앙단장에 선출됨

△1952년 4월 민단 단장단 3인중 1인으로 선출됨

△1953년 7월 민단고문으로 취임

△1955년 「조국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창설 중앙대표위원겸 사무국장에 취임

△1959년 李榮根과 함께 조국에서의 평화확보와 평화적자주통일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계몽지

「통일조선신문」을 창간 대표상임고문에 취임

△1965년 「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 일본본부를 결성 대표위원에 선출됨

△1971년 7월 4일 오전 3시 51분 동경 矢口渡역 전 岩崎내과병원에서 영면。

△1971년 8월 25일 「義士 元心昌先生 在日本社会葬委員会」에서 社会葬으로 執行하고 遺骸는 日本東京大行寺에 奉安함。

△1976년 10월 2일 天安의 「망향의 동산」에 안장되다。

△1977년 12월 13일 大韓民国政府에서 「전국훈장 국민장」 「전국훈장 태극장」을 授与하기로 決定함。

△1979년 9월 24일 양자 元亨載(平沢郡彭城面安亭里)가 훈장을 인수함。

判 決 文

(上海六三亭事件)

判 決

本 籍 朝鮮京畿道振威郡西面安亭里 175

住 所 上海市仏租界菜市路底榮仁里 16

無 職 元 心 昌

明治39년 12월 1일생

本 籍 朝鮮全羅北道井邑郡永元面隱仙里 734의 1

住 所 上海仏租界福履理路亭元坊 6

無 職 白 貞 基

明治29년 1월 19일생

本 籍 朝鮮江原道金化郡西面清陽里 1336

住 所 上海仏租界福履里路亭元坊 6

無 職 李 康 勳

明治36년 6월 13일생

元心昌에 대한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및 폭발물취체규치위반 진조물손괴 白貞基와 李康勲에 대한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및 폭발물취체규치위반 각 피고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村上常太郎 관여로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主 文

피고인 元心昌 白貞基 양인을 각 무기징역에 피고인 李康勲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 물건중 증제 3호의 대형권총 1정, 증제 4호의 소형권총 1정, 증제 5호의 대형권총실탄 9발 증제 6호의 소형권총실탄 7발은 이를 모두 몰수한다.

소송비용중 감정인 馬場傳活에 지급한 것은 피고인 3인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理 由

피고인 元心昌은 조선 경기도에 있는 平沢공립보통학교 졸업당시 大正8년(1919) 3월 1일 때마침 발발한 조선독립운동에 즈음하여 현상에 불만을 품고 장래는 독립운동을 할것을 결의하고 1924년 8월경 東京시로 가서 1925년 4월 日本大学 사회과 전문부에 입학하였으나 학비가 뜻대로 조달되지 않아 동년 9월경 퇴학하였는데 그때부터 무정부주의에 쏠려 「크로포트킨」 저상호부조론 大杉栄전집 기타 무정부주의적 문헌을 탐독하여 이를 믿게 되었으며 그후 北京 上海 등지에서 무정부주의사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자이다.

피고인 白貞基는 15세경 혼인하여 처가에서 그 가업을 돌보아주고 있었는데 자기집은 빈곤한 데 반하여 처가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탐욕하여 처우도 냉혹한 것을 보고 자본가에 대한 반감을 품었으며 21세경부터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1923년경 東京시로 가서 자유노동에 종사중 「크로포트킨」저서 大杉栄이 발행하고 있는 신문「自由労働」등을 탐독하고 점차 무정부주의를 믿게 되었으며 그후 北京 上海에서 무정부주의 실행자가 되었다.

피고인 李康勲은 조선鉄原공립보통학교 및 間島 明東중학교를 졸업한 후 1927년 6·7월경부터 吉林省蜜山縣에서 스스로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조선인 교육에 종사하던중 무정부주의자의 기관지를 읽었으며 「크로포트킨」전집 「크로포트킨」윤리학 프랑스대혁명사등을 읽고 점차 무정부주의에 공명하게 되었다.

그후 北京 上海에서 무정부주의자와 서로 왕래하던자임.

제 1 피고인 元心昌은

(1) 南華朝鮮人聯盟이 혁명적 수단으로 현재의 사회조직을 철폐하고 상호부조의 절대적 자유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조선에 있어서의 日本統治權을 탈취하여 조선독립을 성취하고 日本의 입헌군주체제를 철폐하고 일체의 사유재산을 일반사회의 공유로 넘기고 日本 및 朝鮮에서 무정

부공산주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이의 달성을 위하여 청년대중에게 선언 및 실행을 기도하는 비밀결사인것을 알면서도 1931년 6월경 이에 가맹하였고

(2) 1933년 10월부터 서기로 일하면서 각종정보의 수집 및 연맹원에 대한 보고 및 연구회의 개최를 담당하고 연맹의 주의정책을 실현 또는 확대강화할 것을 기도하였으며

가, 1931년 8월 29일의 日韓合併기념일을 맞아 동월 20일경 仏租界菜市路와 辣斐德路의 교차점 中國人철공장 2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 元心昌의 주거에서 동 연맹명의로 「8월 29일은 조선민족이 타족(他族)의 노예가 된 날이다. 분발하여 적의 아성을 쳐부수자」라고 제목을 달고 그 주의목적을 선전한 격문(증제 8호)을 약 100매 등사. 동월 27·8일 上海에 있는 여러 조선인에게 우송하였으며

나, 1932년 5월 1일 노동절에 즈음하여 동년 4월말경 上海 仏租界菜市路底榮仁里 16호의 당시 元心昌의 주거에서 동 연맹명의로 된 노동절의 의미 및 무정부주의의 내용을 제재한 선전문 약 100매를 등사하여 먼저번과 같이 재 上海 조선인에게 우송하였고

다, 1933년 3월 1일 조선독립기념일을 맞아 동년 2월 하순경 전기 元心昌주거에서 동 연맹명의로 「日本제국주의를 저주하며 모든 사유재산제도와 권력을 파괴하고 무정부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취지」를 쓴 선전문(증제 9호와 같은 것) 약 70매를 등사하여 앞서와 같이 上海 조선인에게 우송하였고

(3) 1932년 11월 중순경 전부터 잘 아는 무정부주의자 柳絮가 北京으로부터 上海에 온것을

알고 田理芳과 더불어 그 숙소인 仏租界西門路武陵公寓에서 柳絮와 만났을 때 그로부터 「나는 北京에서 抗日운동에 종사하며 그 자금으로 福建의 항일단체로부터 7,000원을 받았는데 그 잔금 3,000원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北京 또는 天津에 있는 日本軍部 또는 日本영사관에 폭탄을 던지면 다시 廣東 福建방면의 抗日會로부터 수만의 자금을 얻어낼 수 있으니 그 자금을 무정부주의 운동에 쓰라 나는 그와같은 동지를 모집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며 찬성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 元心昌등은 이에 찬성하고 피고인 元心昌, 柳絮 및 田理芳 3명은 日本軍部 또는 日本영사관을 손괴함과 동시에 무정부주의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곳에 폭탄을 던질것을 공모하고 柳絮가 手榴彈 3개를 준비한 다음 동년 11월 14일 3명이 天津으로 가서 16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하여 田理芳은 관저에 柳絮는 사령부에 자기 수류탄을 던지고 피고인 元心昌은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협의한 다음 이에 따라 英租界 빅토리아 공원안으로부터 총영사등이 살고있는 日本총영사관저에 수류탄 1개를 던져 이를 폭발시켜 관저 외곽의 벽돌담 일부를 손괴하므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4) 1933년 8월 5일 上海 仏租界福履理路亭元坊 6호인 피고인 白貞基 李康勲주거에서 동 피고인 양인과 李達 田理芳 楊汝舟 李守鉉 金芝江 嚴亨淳등의 黑色恐怖團員 및 鄭華岩 鄭海里등 무정부주의자에 대하여 최근 정보라고 하며 「현재 우리 무정부주의자가 東洋에서 가장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제국주의는 日本제국주의인바 日本은 전력을 다하여 滿州國의 건설한 발달을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을 넘기지 않고 전실한 국가가 될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며 또한 日本도 강력한 제국

주의 국가가 될 것이므로 朝鮮과 中國의 혁명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다。駐華日本公使 有吉明은 日本정부 荒木庸平 대사의 밀명에 따라 中國國民政府軍事委員長 蔣介石을 4,000 만원으로 매수하고 蔣介石으로 하여금 滿州를 포기시키고 熱河에서 무저항주의를 취하도록 할 목적으로 中國에 왔으며 이와 같은 교섭은 2월 중순경 대체로 성취되어 근일중 靑島에 정인바 虹口의 모요정에서 송별연회가 열릴 예정인 것을 알았다。는 뜻을 전하자 참석자들은 합의한 끝에 有吉공사가 자택한 4,000 만원은 日本민중의 고혈을 착취한 것으로 蔣의 행동은 中國민중을 파는 매국적 행위인 만큼 우리 무정부주의 자로서는 이 밀약을 양국민중에게 폭로하여 밀약의 성립을 저지함과 동시에 日本의 中國에 대한 외교정책을 실패로 몰아갈까 하여 中國민중의 反蔣熱을 유발시키므로써 항상 주장하는 혁명시기의 단축을 꾀하고자 그 수단으로 有吉공사를 암살할 것을 모의하고 그 다음날 추첨한 결과 피고인 白貞基 및 李康勲은 피고인 白貞基가 동지 鄭華崙 田理芳으로부터 미리 손에 넣어 두었던 폭탄 및 華均美로부터 입수한 권총을 사용하여 有吉공사를 암살하기로 하고 鄭華崙은 차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元心昌은 동지 谷田部勇司에게 전시 암살계획을 알려서 동의를 얻은 다음 동계획에 참여시키고 동월 9일 有吉공사의 사진을 입수하였고 또 그의 상용 자동차 번호도 알아내어 有吉공사의 암살기회를 엿보던중 오는 17일 共同租界文路「六三亭」에서 有吉공사의 연회차 열린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피고인등은 그날밤 有吉공사가 연회장으로 부터 나와 차를 타려고 하는 것을 엿보아 폭탄을 던져서 동공사를 암살할 것을 결의하고 동월 13일 밤 「六三亭」과 그 부근을 지찰한 다음 당일의 참복장소를 武昌路의 中國요리점 松江春으로 정하고 동월 16일 철행하

는날 밤의 연락은 六三亭 앞 工藤자동차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지 모로부터 有吉公使의 돌아가는 시간을 文路和 武昌路 사이길에 있는 谷田部에게 전하고 谷田部는 松江春에 있는 피고인등에 속보하여 피고인 白貞基와 李康勲은 곧 출동하여 공사에게 폭탄을 던질 것이며 피고인 元心昌은 乍浦路和 武昌路의 교차점에서 자동차로 대기하고 폭음이 들린후 3분동안 기다렸다가 다른 피고인들이 오지 않을 때에는 바로 도주할 것을 협의 결정하고 17일에는 오후 2시경 피고인 白貞基 및 李康勲은 上海公寓에서 그날 밤에는 우선 피고인 白貞基가 도시락형 폭탄(증제 1호)을 공사에 게 던지고 그를 추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 李康勲은 수류탄(증제 2호)을 던지고 또 소형권총(증제 4호)을 사용하여 피고인 白貞基는 대형권총(증제 3호)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체포를 면할 것을 협의하였다。

동일 오후 8시경에 이르러 有吉공사는 9시 20분경 六三亭을 나올것이라는 통보에 따라 피고인등 3인과 谷田部勇司는 자동차로 현장에 갔는데 차속에서 피고인 白貞基는 피고인 元心昌으로 부터 전시 권총을 받고 전시 松江春에 도착하자 같이 하차 谷田部는 연락하러 갔고 피고인등 3인은 松江春에서 기다림으로서 폭탄을 사용하여 有吉공사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암살에 착수하기전에 체포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제 2 피고인 白貞基는

(1) 1931년 11월 중순경 中国人 華均実 王亜樵 日本人 田化民 佐野一郎 등과 같이 上海 仏租界 辣斐德路 辣斐坊 모 中国人 집 2층에서 전세계에 대해서 혁명적 수단에 의해서 일체의 권력 및 사유재산제도를 배격하고 진실한 자유평등의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선 朝鮮을 日本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조선에 무정부주의 사회를 건설한 다음 日本의 立憲君主制度 및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또 中国 기타 각국에 있어서의 무정부주의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黑色恐怖团 (B·T·P)을 조직하고

(2) 恐怖团의 확대강화를 도모할 것을 결의하고

가, 1931년 11월 31일경 華均実 王亜樵 佐野一郎과 협의한 끝에 단내에 경제부 선전부 정보부를 설치하고 경제부의 책임자로 佐野一郎을 정하고 또 국제단체의 취지에 따라 각국인부를 두어 외국인을 입단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白貞基는 조선인부 佐野一郎은 日本人部 華均実과 王亜樵는 中国人部를 자기 담당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극력 파괴활동에 있는 힘을 다하며 각단원은 국적에 따라 자기나라에 대한 파괴공작을 기회있을 때마다 실행할 것을 결정하고

나, 동년 11월 3일경 仏租界 福履理路 敬坊 모담배가게 2층에서 李守鉉 田理芳에 대하여 동월 8일경 仏租界 賈四義路 平厚坊 모재봉집 2층에서 金芝江 李達 嚴亨淳 楊汝舟에 대해서 1933년 2월 20일경 上海 仏租界 福履理路 亭元坊 6호인 피고인 白貞基의 주거에서 피고인 李康勲에

대해서 자기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입단할 것을 권유 그 승락을 받아 입단시켰다.

다, 동단의 파괴공작에 쓸것을 목적으로 1932년 8월경 華均実로부터 권총 2정과 탄환 20발 (증제 356호) 동년 9월중 鄭華岩으로부터 도시락형 폭탄 및 대폭탄 각 1개를 모두 당시의 자기 주거인 仏租界 菜市路 祥順里에서 또 1933년 3월 7일경 上海 仏租界 福履理路 亭元坊 6호에 있는 자기 주거에서 田理芳으로부터 수류탄 1개 (증제 2호)를 받고 이것으로 동단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알리고

(3) 1933년 3월 17일 피고인 元心昌 李康勲과 공모 전시 제 1의 4에 기재한 것과 같이 駐中공사 有吉明을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폭탄을 사용하려고 할때 검거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제 3 피고인 李康勲은

(1) 1933년 2월 20일경 上海 仏租界 福履理路 亭元坊 6호 피고인 白貞基의 주거에서 동 피고인으로 부터 전시 제 2의 2 기재와 같이 黑色恐怖团이 혁명적 수단에 의하여 日本의 입헌군주제 및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日本 기타 전세계에서 무정부주의 실현을 목적으로한 비밀결사인것을 설 명받고 입단을 권유당하자 동단의 주의목적에 찬동하고 동단에 가맹하였고

(2) 1933년 3월 13일 피고인 元心昌 白貞基 등과 공모하여 전시 제 1의 (4) 기재와 같이 駐中

国公使有吉明을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폭탄을 사용하려할 때 검거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이다.

그래서 피고인 元心昌의 제 1의 (2) (3) 폭발물을 사용 또는 사용하려고 한 행위는 범의제속에 관제되는 일임.

또 피고인 元心昌은 1928년 9월 2일 東京 재판소에 있어서도 1926년 법률 제 60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하여 징역 3월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임.

증거로 미루어 볼때 판시 사실에 대해서는 범의제속의 점만을 제외하고 피고인 3인이 전부 이를 자인할 뿐만 아니라

1. 앞수된 증제 7호의 南華朝鮮人聯盟規約 및 規程이라고 제한 문서와 증제 8호의 「8월 29일은 朝鮮민족이 異민족의 노예가 된 날이니 일어나서 적의 아성을 쳐부수자」라고 제한 문서는 판시한 바와같이 기재되어 있고 증제 9호의 문서와 증제 1호 제 2호의 폭탄파편 및 증제 3내지 증제 6호의 대소권총실탄의 존재는 이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피고인 元心昌의 판시 제 1의 (3) (4)는 폭발물의 사용 또는 사용하려고 한 행위 범의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단기간내에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함. 또 피고인 元心昌의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당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음.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된 것으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 元心昌의 판시 행위중 (1) 및 (2) 국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가입한 점과 목적수행을 위한 점은 치안유지법 제 1조 제 1항 후단에 사유재산제도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가입한 점 및 목적수행을 위한 점은 동법 제 1조 제 2항에 해당하는 바 이는 1개의 행위로서 2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형법 제 54조 제 1항 전단 및 제 12조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하고 제 1의 (3) 폭발물을 사용한 점은 폭발물취체규칙 제 1조 형법 제 60조에 (4)의 행위중 사람의 신체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하다가 들킨점은 폭발물취체규칙 제 2조 형법 제 60조에 살인예비의 점은 형법 제 201조 제 6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죄명에 저촉되느니만큼 형법 제 54조 제 1항 전단 및 제 10조의 하여 무거운 형인 폭발물취체벌칙 제 2조의 형에 따르고 2개의 폭발물취체벌칙을 위반한 행위는 연속범인만큼 형법 제 55조 제 10조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형인 폭발물취체벌칙 제 1조의 죄 하나로 하여 소정 형기중 무기징역을 선택하였고 아울러 전시 치안유지법 제 1조 1항 후단의 죄는 형법 제 45조 전단의 병합죄이나 이미 앞에서 무기징역이 선택되었으므로 동법 제 46조 제 2항에 따라 다른 형을 가하지 않고 피고인 白貞基의 판시 행위중 제 2 (1)의 국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조직한 점은 치안유지법 제 1조 제 1항 전단에 사유재산을 부인할 목적을 가지고 결사를 조직한 점은 동법 제 1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바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 54조 제 1항 전단 및 제 10조에 의하여 전자의 형에 따를 것이며 전기 결사조직의 행위중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는 연속범인 것으로서 형법 제 55조 제 10항에 의하여 치안유

지법 제1조 제1항 전단의 죄와 한죄로하여 동조 소정형기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함.

제2의(4)(3)의 행위중 사람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하려고 할때 발각된 점은 폭발물취체벌칙 제2조 형법 제60조에 살인예비의 점은 형법 제201조에 각기 해당하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과 제10조에 의하여 보다 중형인 폭발물취체벌칙위반의 형에 따른다.

또 전시결사조직의 죄는 형법제54조 전단의 합병죄이나 이미 결사조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택되었으므로 동법 제46조 2항에 의하여 여타의 형은 가하지 않는다.

피고인 李康勲의 (1)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가입한 점은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단에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가입한 점은 동법 제1조 2항에 해당하는 바 이는 1개의 행위로서 여러개의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과 제10조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전자의 형에 따르기로 하며 제3(2)의 행위중 사람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하려 할때 발각된 점은 폭발물취체벌칙 제2조 및 형법 제60조에 살인예비의 점은 제201조에 해당하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및 제10조에 의하여 폭발물취체벌칙 제2조의 형에 따르고 동조 소정형기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전시결사가입의 행위는 형법 제45조 전단의 합병죄이므로 동법 제47조 제10조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전자의 형에 처하고 동법 제14조의 제한범위내에서 병합죄를 가중시켜 李康勲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또 형법 제21조에 의하여 대형권총 1정(중제3호) 소형권총 1정(중제

4호) 대형권총실탄 9발(중제5호) 및 소형권총실탄 7발(중제6호)은 모두 피고인들이 본건 살인예비에 쓰려든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사람에 속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9조 제1항 2호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압수함.

소송비용중 주문 특기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38조에 따라 피고인 3인이 연대해서 부담시키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함.

昭和8年(1933) 11월24일

長崎地方裁判所

刑事部

裁判長

判事